

카니발, 미니밴 시장 독주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제332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2030.26	(-3.01)
코스닥	681.73	(+5.68)
금리(국고채 3년)	1.6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33.00	(+6.00)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아침 출근길의 '메트로'는 독자들과 함께 희망찬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은 '메트로'의 보람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사회가 밝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① 18년 경력 베테랑 기관사

박 형 렬 씨



'시민의 발' 출근길 신속·안전하게…

"청소·경비원과 함께 여는 새벽"



경력 18년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씨가 지난 17일 새벽 차량 221번의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서울메트로 신정 차량사업소.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시각에도 이곳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취재 약속 시간인 4시 30분이 되기 전까지 대기한 1층 로비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시가 넘어서자 1층 로비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더니 이내 건물 안이 환해졌다. 4층 운영사업소에서는 기관사를 깨우는 기상 업무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신정과 대림, 동대문, 홍대입구역 열차의 출발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지하철 차량 기지다. 새벽 근무를 하는 기관사들이 오후 6~8시 사이에 들어와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관사들의 야간 당직 순번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꼴로 돌아온다. 기관사 1명과 차장 1명이 1개 조로 배정된다. 차량 기지로 들어온 기관사들은 저녁 식사 후 야간에도 근무를 한 뒤 평균 4~5시간 가량의 수면을 취하고 새벽 근무에 들어간다.

새벽 1시 열차 운행이 종료된 뒤 차량 기지 검수고에서 차량 청소와 점검을 완료한다. 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긴급 고장이 발생하면 운행 차량을 바꿔야 한다. 때문에 기관사들은 첫 차 출발 전 최소 35분 전에는 승차를 완료해야 한다.

운영사업소에서 기관사들에게 알리는 기상 전화는 첫 운행 1시간 5분 전인 4시 5분부터 시작돼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제동 스위치 차단기 확인 등 새벽 4시부터 차량 안전점검

쉬지 못 해도 서운한 건 없어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마음 뿐

5시 55분 외선순환 열차 운행을 맡은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씨(46·남)의 기상 시간은 4시 50분. 남들 같으면 휴일을 앞두고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 박 씨는 전날 오후 6시 출근해 야근까지 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피곤하다거나 휴일에 쉬지 못해 섭섭한 건 없다"며 "오늘도 승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차를 탔다"고 말했다.

박씨는 운영사업소에서 근무 시간과 지시사항 등 간단한 일정을 확인한 후 검수고로 향했다. 검수고에서 운행 차량 번호 등을 확인 작성한 그는 열차에 올랐다.

박 씨가 이날 운행을 맡게 된 차량은 221번. 열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들어서자 "보안 제동 스위치가 취급됐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들렸다.

기관사들이 열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제동 스위치와 차단기의 작동여부 확인이다. 박 씨는 "전기차는 회로도가 다 구성돼 있다"며 "제동기가 오작동 하면 역을 지나치거나 큰 사고가 발생하고 동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열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제동 스위치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검수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 차량 번호와 운행 기관사, 운행구간 등에 대한 승무 일지를 기록했다.

이후 간단한 시운전과 열차 끝머리에 있는 운전석 점검을 했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구조에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는 차량 외부 상태 점검 등을 완료한 뒤 검수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전동차는 예정된 5시55분보다 1분 정도 늦은 5시 56분께 신정 기지를 출발했다. 2호선 신도림역을 거쳐 사당역까지 가는 동안 첫차를 타는 손님들은 청소원, 경비원 등 시설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박 씨는 "청소원, 경비원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런 분들의 발이 되는 게 첫 차 운행의 보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편안한 승차감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가을 입사전쟁 스타트

삼성·현대차 등 입사시험 24일 금융공기업 'A매치' 3만명 채용… 취업난 숨통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을 필두로 올 하반기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등의 채용 시즌이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11면>

주요 그룹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3만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덕분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보다 힘들다'는 국내 취업난도 숨통이 트일 전망된다.

올 하반기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펙에서 직무능력 검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어 점수나 자격증보다 입사 후 실무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삼성그룹은 18일 삼성그룹 대졸(3급)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직무적성검사(GSAT)를 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국내 5개 지역과 뉴욕, LA 등 미국 2개 지역에서 GSAT를 진행했다.

삼성직무적성검사의 영문명칭은 지난 5월부터 SSAT에서 GSAT로 변경됐다. 언어논리와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직무상식 등 모두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삼성그룹은 서류전형을 부활하는 대신 기존 학점제한(3.0 이상/4.5 만점)은 없앴다. 면접도 달라졌다. 기존 직무역량면접(PT·프리젠테이션)과 임원면접(인성면접) 사이에 창의성면접이 추가됐으며 각각 30분이다. 창의성면접은 면접관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지원자가 주어진 과제에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형태다. 삼성은 11월 중 면접을 실시하고 11~12월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18일 삼성 직무적성검사 마친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도 지난 9일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인턴채용을 위한 인·적성시험(HMAT)을 서울 잠실고와 부산,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치렀다. 현대차그룹은 4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HMAT 시험 결과는 23일 발표한다. 합격한 응시생은 26일부터 예정된 1차 면접(핵심역량면접과 직무역량면접)을, 2차 면접은 다음 달 중순에 치른다.

금융공기업은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가 과도한 스펙 쌓기 부담을 덜어주고 직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3월 130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NCS에 기반을 둔 채용모델을 적극 도입하거나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필기시험을 치른 기업은행과 'A매치 데이'로 불리는 24일 필기시험이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보 등은 모두 올해 NCS에 따른 전형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역시 공식적으로는 NCS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 전형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GunDea and Gangnam, special area for Chinese travelers

건대·강남 유커 특구



Chinese travelers are spreading in Gangnam and Iteawon from MyongDong which was a their traditional favorite place to visit.

Pengtai, Chinese digital marketing subsidiary of Jeil Company, has studied approximately 140,000 the big-data that were searched on the application 'Korean Subway' for 10days from September 28th to October 7th including the 15th, national holiday. And it showed Myongdong was with the highest search numbers, and Hongdea(12%),Dongdeamoon(6%) and Seoul Station(5.7%) accordingly.

Gundea Station(ranked 14th place, 33 rakings up), Kangnam station(ranked 12th,19 rankings up), Iteawon Station (ranked 18th,10 rankings up) are the most remarkable changes compared to the last year. It looks like many Chinese tourists are coming to the 'Common Ground', a huge container-shopping mall that opened up this year close to the Gundae subway station. Gangnam station also has many attractions around it for Chinese people including shopping centers, famous restaurants, and hospitals for plastic surgery; Some Chinese people visit this place for plastic surgery during a long holiday. Iteawon Station is becoming popular too because many of the restaurants that are run by famous chefs in Korea are placed around here. These chefs are the ones who are on the cooking shows of Korean TV channels, and the programs got popularity in China as well, which naturally caused the incoming of Chinese travelers in Iteawon.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은 장소가 전통적 상권인 '명동'에서 건대입구와 강남역, 이태원 등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의 중국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 펑타이(鵬泰·PENGTAI)는 15일 국경절 연휴가 포함된 열흘 간(9월28일~10월7일) '한국지하철' 앱에서 검색된 약 14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명동역의 검색 비중은 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홍대입구역(12%), 동대문역(6%), 서울역(5.7%), 인천국제공항역(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전통적인 상권 외에 전년대비 순위가 급상승한 역이다. 건대입구역(14위, 33계단 상승), 강남역(12위, 19계단 상승), 이태원역(18위, 10계단 상승)이 급격히 부상했다. 건대입구역은 올해 역 인근에 문을 연 대규모 컨테이너 쇼핑몰 '커먼그라운드'가 새로운 쇼핑 코스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커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은 쇼핑장소, 맛집 등과 더불어 성형외과가 밀집된 지역으로 긴 연휴를 이용해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유커들이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원역은 국내에서 방영되는 요리 프로그램이 중국에서도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쿡방'에 출연하는 유명 셰프들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역을 방문하는 유커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항모에 탑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일본 각료 2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헌납했다.

▲ 윈도우 7과 8이 탑재된 PC에 윈도우 10 설치파일을 '몰래 다운'시켜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묻지마 강제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

▲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이후엔 (교과서) 집필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총선 때 이슈로 내걸어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할 수 없게 법제화하고, 못하면 대선 때도 이슈화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 1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은 금강산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 속초에 모여 60여년 만의 만남을 준비한다.

사회

▲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21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축하합니다"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이 19일 집결해 하룻밤을 묵을 속초 한화리조트 도로변에 18일 적십자기가 내걸리는 등 축하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메트로신문'과 함께 새벽을 여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46)씨를 동행 취재했다. 박씨는 "청소원, 경비원들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런 분들을 태우는 데서 첫 차 운행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정부가 내년부터 빈 병을 돌려주면 받는 보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빈 병 대란**이 일어났다. 일부 가정과 고물상, 빈 병 수거업체 등이 빈 병 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류업체들은 빈 병이 없어 소주, 맥주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내달 7~8일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입찰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롯데가 올해 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2곳(소공동 본점·잠실 월드타워점)의 면세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경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경영권 분쟁에서 힘을 잃게 된다.

▲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올해 월평균 5590대가 팔리며 미니밴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카니발 대항마를 출시하며 경쟁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대항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카니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급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적용한 타이젠폰으로 인도와 신흥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등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북미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적용 기기수를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자 이에 대해 밴(VAN)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석유제품 현물시장인 **KRX석유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등유가 거래된다. KRX석유시장은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개설돼 현재 경유와 휘발유가 거래되고 있다.

▲ 지난 17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오는 24일은 'A매치 데이(Day)'로 한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른다.

‘삼성페이’ 내년부터 중저가폰 탑재… 경쟁력 ↑

보급형 라인업 확대 장착 삼성전자와 시너지 기대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적용 기기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최근 중저가 제품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시장에 선보인 플래그십 제품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중저가 라인업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갤럭시 A8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3200만대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점유율 24.6%(8160만대)를 기록했다. 증권업계도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8100만~8300만대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8000만대를 넘긴 것은 중저가제품의 집중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외 시장에서 중저가형 갤럭시 시리즈(A·E·J)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삼성페이 기능이 적용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4종류(갤럭시 S6·S6엣지·S6엣지+·노트5)에 불과하다. 삼성페이가 시장 출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지원 기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TS) 기술과 근거리이동통신(NFC) 기술을 모두 지원한다. 범용성 측면에서 애플페이·안드로이드페이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전자도 삼성페이 탑재 기기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도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MST와 NFC 결제방식을 지원하는 일체형 통합모듈의 원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폰 원가 상승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페이 적용 기기가 늘어날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페이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페이 탑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를 시작으로 향후 갤럭시E, J까지 탑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현대카드 “삼성페이 전표 수거료 지급 안해”

시스템 특성상 불법결제 등 사고 가능성 적어 밴 업계 반발… 삼성전자에 밴 수수료 요구할 것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밴(VAN)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삼성페이 결제에 한해 전자전표를 수거하지 않기로 하고 13개 밴사에 지난달 통보했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카드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다. 가맹점에서 매출 전표를 거둬들여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에 넘긴다.

현대카드가 삼성페이 결제에 따른 매출전표를 수거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제과정에서 지문 인식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삼성페이의 특성상 제3자의 불법 결제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표를 넘겨받을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더욱이 현대카드의 이같은 결정을 계기로 전자전표 수수료 지급 거부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페이 외에도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이를 활용한 결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의 경우 출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 누적 결제액 350억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밴 업계는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전표 매입 수수료 수입이 사라질 가능성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결제 시장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시간을 두고 새 제도를 안착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협상도 없어 너무 갑작스럽다”며 현대카드를 비판했다.

밴 업계는 현대카드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삼성전자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밴사 기간망을 쓰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삼성전자가 현재 최대 수익자”라며 “삼성전자에 밴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TPP 문 열렸지만…韓·美 FTA 완전이행 압박

美, 원산지 검증·FDA 규제 등 미해결 과제 신속타결 촉구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로 화답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한국의 합류가 결론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한국은 기존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은 미국과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TPP 논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놓치면서 TPP 타결 때까지 손을 놔야 했다. 협상국들이 협상 중간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타결 이후 12개 참여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낙관적인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TPP 가입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며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FTA는 원산지 검증,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규제 문제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TPP와 관련해 한국은 또 다른 부담도 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TPP를 경제분야에서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해군에 의한 대중국 봉쇄망에 더해 또 다른 의미의 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타결에 앞장 선 이유이기도 하다. 또 협상국들이 TPP 타결에 서둘렀던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TPP의 대항마 격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TPP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기업인들에게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고민을 덜게 됐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주 만나면 정든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정 들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남중국해 인공섬 "한국이 목소리 내야"

美 정가 '韓, 중국쏠림설' 인정
美-中 간 갈등사안 협력 요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유의 직설화법은 한국과 미국 간 민감한 현안을 비켜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 쏠림'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해킹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며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로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에는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 등 여러 갈등 사안이 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은 이중 특히 중국의 해킹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등 두건의 합의문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무색하게 현재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인공섬 주변에 해군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시설물을 강화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에 버금가는 현안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자료까지 빼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중국 사이버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핵심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해킹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킹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조 요구에 침묵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북 협력 관계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바로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중은 사실상 대일본 동맹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 그는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여러 차례 전한 워싱턴 정가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발언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은 오직 미래에 관심이 있을 뿐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해 왔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한국군 베트남전 성범죄 규탄 광고

일본의 꼼수? WSJ 광고 배후 의혹 증폭

<월스트리트저널>

한일관계 정상화 진실성 도마에

로비전문 전 美의원, 앞장 정황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미국 동부시간) 세계 양대 경제지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규탄하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미국의 베트남 인권단체인 '베트남의 목소리'(Voices of Vietnam)가 낸 이 광고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일본의 진실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왜 한국은 베트남전 만행을 사과하지 않느냐는 메시지이자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박 대통령 방미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말하고는 뒤에서 한국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셈이다.

WSJ에 실린 광고에는 상단에 4명의 베트남인 피해여성이 나온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그 아래 왼쪽에 "박 대통령, 우리는 성폭행을 당했다. 사과할 시간이다"라는 영문이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 박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는 사진이 나온다.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군 수뇌부와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한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군의 과오를 책임질 당사자라는 메시지다.

이날 '베트남의 목소리'는 워싱턴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다. 행사 진행자인 신디 응우옌 사무국장은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군의 체계적인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군대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화상연결을 통한 증언도 있었다. 신문 광고에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다. 이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당선 이후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의 배후를 두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베트남계 단체가 거액의 광고를 낼 수있을지 고민했다"며 일본을 의심했다.



미국의 베트남 인권단체인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고발하는 증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실려 있다. /화면캡처

실제 일본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기자회견에는 놈 콜맨 전 미 상원의원이 나와 한국을 비판했다. 그는 로비 전문 영국계 대형로펌인 호건 로벨스에 2011년 4월 합류했다. 호건 로벨스는 지난해 2월 일본의 로비업체로 고용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미국 의회 관련 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미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호건 로벨스는 위안부 결의안 실행을 추진하는 미 하원 의원들과 재미한인 단체들의 교섭내용은 물론이고 미국 내 위안부 관련 행사, 광고, 법안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를 수집해 준 대가로 호건 로벨스에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간 52만3000 달러(약 5억6000만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콜맨 전 상원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미국의 폭스뉴스에 한국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의 기고문은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 있다. 박 대통령의 계룡대 사진을 클릭하면 그의 기고문이 뜬다.

기자회견 당일 박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서 "3국 정상회담이 한국의 주선으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그 기회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이제 47분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 그것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동안 일본은 '베트남전 성범죄'를 사과하라고 막후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 총리의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16일(일본 시간)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면담하며 "한국을 찾아 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위안부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최경환, 총선출마 시사… 후임 '경제수장' 누가 될까

안종범·현정택·김준경·임종룡 등 거론


안종범 경제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직을 그만두고 차기 총선 출마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후임 부총리에 누가 발탁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총리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경제수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인사가 부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종범 수석은 청와대의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고 대구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안 수석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최 부총리와 발맞춰 경제정책을 조율해 왔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수석은 기재부(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KDI 원장을 지낸 바 있어 기재부 관료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경 현 KDI 원장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에게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각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임종룡 위원장도 무시 못할 후보자로 꼽힌다.

이밖에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도 차기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손배소 21일 첫 재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전 공지 의무 쟁점

형사재판 결과 민사에 영향 미칠 듯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 1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 1074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이후 김씨 등은 지난 6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 1명당 30만원씩 모두 3억22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의 쟁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고객정보 불법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경우 홈플러스 측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 1074명에게 청구된 배상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덕준(아성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의 결과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과 검찰 모두 형사 재판에서 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709억 체납' 조동만, 출국취소訴 패소

항소심도 원고청구 기각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년 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조 전 부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출국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선준 기자



상주 곶감만들기 시작 곶감 주산지인 경북 상주에서 곶감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18일 상주시 남장동 덕장에서 주민들이 깎은 감을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팀 꾸린다

내년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지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범죄예방을 진단하는 조직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경찰이 방범진단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인원 2~3명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범죄예방과정 등 관련 교육을 받고 범죄예방 진단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우선 도입하고서 차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범죄예방진단팀은 빈집털이와 같은 침입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범죄 취약 요소를 심층 진단해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또 112신고 접수결과, 범죄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실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장소·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 발생의 원인을 진단·분석해 조처를 하고서 사후평가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유선준 기자

'투신사망' 前 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인정

유족 급여訴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감사원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 인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피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부실감사 의혹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을 지휘했다.

2012년 11월에는 감사원장 바로 아래인 감사위원(차관급)에 올랐지만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새 원장 취임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급기야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진정제 기운으로 견뎌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는 결국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병가를 냈다.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어서 의사와 부인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해 3월 초에는 '4월10일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가고 싶다, 일을 그만두면 살고 싶지 않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만찬일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은 급속히 악화했다. 그는 결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찬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부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홍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복귀 압박과 부담감에 만찬일을 하나의 기준일로 정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SK telecom
이상하자
누군가를 미치게 만들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LUNA
SK텔레콤만의 전용폰, LUNA
풀 메탈 일체형 바디 | 5.5인치 대화면 Full HD 디스플레이
후면 1300만 / 전면 800만 화소 | 128GB까지 확장 가능한 외장 메모리 슬롯
지금 바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으로 방문하세요!
band LTE

삼성전자 타이젠OS로 자체 생태계 구축

보급형·프리미엄 제품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세
구글 의존도↓ 경쟁력↑


삼성전자 삼성페이 서비스. /삼성전자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코너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급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적용한 타이젠폰으로 인도와 신흥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 S6, 갤럭시노트5 등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타이젠폰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애플처럼 자체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특히 구글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30%대 중후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들어 점유율 4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4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1월 첫번째 타이젠폰인 'Z1'을 앞세워 갤럭시 E5와 E7, A3와 A5 등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해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첫 타이젠폰인 Z1은 출시 5개월 만인 지난 6월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며 인도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끌어모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두번째 타이젠폰인 Z3를 공개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타이젠폰의 상승세를 유럽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날 외신들은 삼성전자의 타이젠 스마트폰 '삼성Z3'가 유럽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IT 전문매체들은 SM-Z300F라는 모델명의 단말기가 유럽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SM-Z300은 타이젠폰인 삼성Z3의 모델 번호이고 F는 삼성전자가 유럽형 단말기에 붙이는 코드라는 설명이다. 즉 삼성전자의 타이젠 스마트폰인 Z3가 유럽에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사장(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임직원들이 17일 충남 아산시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 고치기, 드림하우스' 봉사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지역 취약계층에 건강한 보금자리 마련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대학 봉사단 등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박동건 사장과 임직원, 대학생 봉사단 등이 한국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와 함께 충남 아산 영인면에서 '희망의 집 고치기, 드림하우스'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의 드림하우스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에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가정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중 집이 오래되고 낡아 개선이 시급한 이웃들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웃들의 집은 앞으로 2주간 주방과 욕실, 벽체와 지붕을 보강하고 전기시설을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임직원들이 모은 집짓기 성금 3억5000만원으로 내년까지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 내 24개 가정을 찾아 드림하우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전국 사회복지시설 10곳서 임직원·임직원 가족 함께해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냉난방시스템에어컨을 수리, 청소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울·수원·부천·대전 등 전국 10곳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펼친 봉사활동에 임직원 280여 명과 임직원 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06년부터 매년 1회 임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부터는 연간 2회로 늘려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복지시설에 있는 TV, 냉난방시스템에어컨 등 전자제품 150여대를 수리하고 거주공간의 벽지와 장판도 새 것으로 교체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대비할 수 있게 도왔다.

특히 수원에서는 복지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김해에서는 5월에 이어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

유희상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는 "임직원들이 매년 1회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2회로 늘렸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은 물론 전국 서비스 사업장과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다시 만난 우리 문화유산전' 올레드로 한국 아름다움 전해

LG전자가 해외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의 감동을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로 전한다.

LG전자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복궁에서 '다시 만난 우리 문화유산전'을 열고 해외에서 촬영한 한국의 유물들을 올레드 TV 20대로 보여준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문화재청, KBS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다. KBS는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6개국 주요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 40여 점을 울트라HD 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이번 행사는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물들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문화재들이 많아 학술적, 교육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LG전자는 압도적인 화질의 올레드 TV가 금동여래입상, 청자상감운학문유병, 백자청화운룡문호 등 소중한 유물이 담고 있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편의·휴대성 갖춘 접이식 블루투스키보드 상륙

LG전자
'롤리 키보드' 국내 출시

LG전자가 19일 세계최초 4단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롤리키보드(Rolly Keyboard)'를 국내 출시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향후 베스트샵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12만 9000원.


LG전자 롤리키보드. /LG전자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2015에서 공개된 '롤리 키보드'는 사용편의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블루투스 키보드로 호평을 받았다. 롤리 키보드는 일반 노트북 키보드 정도의 크기(263×103.7×14.8mm)지만 두루마리 말듯이 4단으로 접으면 2.5cm 두께의 막대형태가 돼 휴대하기 쉽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간단히 펴고 접는 동작만으로 전원을 자동으로 온·오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등 2개 기기까지 블루투스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롤리 키보드는 AAA 건전지 하나로도 하루 평균 4시간 사용했을 때 약 3개월이상 사용 가능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과 호환된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카니발, 미니밴 시장의 독주

월 평균 5590대 판매
올해 6만7000대 예상
성능·안전사양 다갖춰
타사, 아성 접근 못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올해 월 평균 5590대가 팔리며 미니밴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카니발 대항마를 출시하며 경쟁에 나섰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카니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올해 1~9월 카니발은 5만307대가 팔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카니발은 4만1643대(구형 모델포함) 판매됐다. 3분기 기준 이미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카니발은 올해 6만7000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니발의 가격은 2735만~3819만원이다. 2.2 디젤 모델과 3.3 가솔린 모델로 판매되고 있다. 디젤 모델은 11.5㎞/ℓ의 연비에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m의 힘을 낸다. 3.3 가솔린 모델은 8.3㎞/ℓ의 연비에 최고출력이 303마력, 최대토크가 34.3㎏·m다. 또 스마트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으로 접근하면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일 테일게이트', 차량 앞쪽·뒤쪽에 독립 설치된 '듀얼 선루프', 4개의 카메라가 주차를 돕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의 다양한 옵션도 탑재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카니발은 1998년 출시 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라며 "디젤 모델과 5월 출시된 가솔린 모델은 9인승·11인승을 기반으로 디자인, 주행성능,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을 갖춰 수입차와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차 카니발. /기아차

카니발의 독주에 맞서 국내 경쟁업체들은 대항마를 출시했다. 쌍용자동차는 9월 신형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해 월 판매 1000대까지 바라봤지만 같은 달 425대 판매했다. 쌍용차 측은 4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코란도 투리스모의 오프로드 성능을 내세웠다. 9인승, 11인승으로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의 가격은 2866만~3354만원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미니밴을 내놓았지만 월 100대 이하의 판매고를 올리며 카니발의 아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올해 2월 부분 변경된 3세대 시에나를 출시했다. 시에나는 수입 미니밴 1위에 오르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시에나는 월평균 60~70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시에나의 가격은 5210만~5550만원이다. 시에나 3.5 가솔린 모델은 8.5㎞/ℓ의 연비에 최고출력 266마력, 최대토크 33.9㎏·m의 힘을 낸다. 카니발 3.3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연비는 0.2㎞/ℓ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동력성능은 카니발이 시에나를 앞선다.

프랑스 브랜드 시트로엥은 그랜드 C4 피카소를 캠핑 페스티벌에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판매량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랜드 C4 피카소의 가격은 1.5 디젤 모델이 3990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아차 디자이너 순수 예술작품 뽐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기아자동차가 11월 13일까지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직접 만든 공예, 회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들은 기아차 디자인센터 디자이너 110여명이 제작했다.

또 기아차는 이번 전시에 별도의 기아 전시관을 마련하고 '소년·소녀의 감성,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디자이너 각자의 기억 속에 내재된 유년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재미(FUN)'를 콘셉트로 재해석한 총 100여 점의 창작물을 선보인다.



김경수 기아 디자이너의 작품인 '와이어 섬네일'(왼쪽)과 정태희 디자이너의 작품인 'Glassy Ocean'. /기아차

이는 기아차 디자이너들이 기아디자인센터에서 쌓은 창작역량을 자동차디자인이 아닌 순수예술작품 창작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고객들과 색다른 디자인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다.

기아차 측은 "기아차 디자인 경쟁력의 원천은 기아차 디자이너 개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이번 전시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만든 순수 창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차는 2009년 처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가한 이래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4번째로 참가했다. /정용기 기자

현대차 본사에 미니버스 '쏠라티' 등장

국내 출시 앞두고 사전계약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에 미니버스 쏠라티(SOLATI)가 등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주차장에는 학원차나 비즈니스 셔틀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15인승 유럽형 미니버스 쏠라티 5대가 세워져 있다.

최근 열린 골프대회 '프레지던츠컵'에 지원됐던 차량이 현대차 본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본사 배치를 계기로 이달 또는 내달에 국내에서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쏠라티는 12인승인 스타렉스와 25인승 카운티 버스의 중간 차급인 유럽형 소형 상용차다.

현대차는 쏠라티가 출시되면 호텔이나 법인들의 비즈니스용 또는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미니버스나 학원차 등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미니버스 쏠라티.

의전용 리무진, 캠핑 등 레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쏠라티의 전장은 6195㎜, 전폭은 2038㎜, 전고는 2700㎜다.

최고출력 170마력의 힘을 내는 2.5 CRDi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6월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쏠라티는 500대가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쌍용차, 올해 내수 10만대 목표 결의 대회

쌍용자동차는 '2015년 국내영업본부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을 다짐하고 임직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쌍용차 국내영업본부는 물론 전국지역본부 임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상반기 판매실적을 점검하고 내수 시장 현황·하반기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이번 결의대회는 단합된 마음으로 판매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산악 등반 대회도 함께 실시했다.

1월 출시 후 국내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티볼리의 가솔린·디젤 모델과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등 유로6로 업그레이드된 SUV 전 라인업을 기반으로 올해 내수 판매 목표 10만대를 달성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판매 호조로 내수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9월까지 6만9243대를 판매해 2014년 전체 내수 판매실적(6만9036대)을 넘어서는 등 전년 동기 대비 38.9%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영한 쌍용차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수출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티볼리 가솔린·디젤 모델의 성공으로 내수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판매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판매 네트워크 확대, 생산성 제고 등 판매 확대 방안을 통해 내수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쏘나타 vs 포터' 올해의 베스트셀링카 쟁탈전

현대자동차 쏘나타와 포터가 올해의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내수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쏘나타다.

이 기간 7만4945대가 판매됐다.

포터는 7만3829대로 그 뒤를 쫓고 있다.

8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 1위 자리를 지켰던 포터는 지난달에 쏘나타에 역전을 허용했다.

7월부터 디젤 모델 등을 내놓으며 라인업을 확대한 쏘나타 2016년형이 꾸준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쏘나타.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로 연말까지 약 5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용기 기자

안전은 기본 '강력함·편의성'도 갖춘 SUV

시승기

볼보 XC60

D3 엔진 넣고 가격은 ↓ 오프로드 달리는 성능 스포티한 쿠페 디자인


볼보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XC60'. /볼보

안전한 차의 상징인 볼보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XC60'은 오프로드를 거침없이 달리는 성능과 스포티한 쿠페 디자인이 결합된 볼보차의 대표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볼보의 XC60이 새로운 D3 엔진을 탑재하고도 기존 D4보다 가격은 500만원 인하했지만 제논 헤드램프와 시티 세이프티, 파크 어시스트 센서, 통합형 2단 부스터 쿠션 등 편의사양은 그대로 탑재한 가격이 5220만원이다. 2.0리터의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돼 최대 토크 35.7kg·m, 최대출력 150마력을 낸다.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는 부드럽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돕는다.

XC60은 지난 9월까지 521대가 판매된 인기모델이다. 전체 볼보 판매량의 약 17%를 차지한다.

19일 볼보 XC60 D3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까지 왕복 100km 구간을 주행했다.

탑승전 바라본 볼보의 정면 보닛라인은 탄탄한 남성미를 상징하듯 단단해 보인다. 넓은 전면그릴과 범퍼아래 그릴은 차체를 더욱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한다. 절제된 선으로 단순하지만 세련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은 26년 전 한국에 진출한 후 변함없는 모습이다.

후면에 붙어 있는 '시티 세이프티' 스티커는 안전을 내세우는 볼보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볼보가 세계 최초로 적용한 시티 세이프티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 중 앞차의 급정거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앞차와의 속도 차이가 시속 15km 이하일 경우 추돌 없이 차량을 정지시킨다.

인테리어는 외관과 어우러지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하다. 센터페시아(중앙 편의장치) 뒤의 숨겨진 수납공간도 볼보만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요소다. 도어 스토리지 주변에는 알루미늄으로 장식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내비게이션 입력방식은 목적지 설정을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이얼로 돌려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하다.

XC60의 앞좌석에는 2방향 전동식 허리 받침과 8방향 전동 조절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석에는 3개의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트 시트가 적용됐다.

도심주행 시 8단 변속기 덕분인지 변속되는 울컥거림이 없다. 신호대기 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작동되는 '오토 스탑앤고' 기능도 거슬림 없이 시동이 꺼졌다, 켜지는 과정도 자연스럽다.

SUV 답게 시속 60km에서 코너링이 안정적이다. 좌우 구동력을 배분하는 '코너 트랙션 콘트롤'시스템 덕분이다.

서스펜션은 단단한 편이지만 독일차와 비교해서는 소프트하다. 간혹 서스펜션을 너무 하드하게 설정해 해놓은 차의 경우 한국 도로의 특성상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마다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XC60은 현대차 보다는 딱딱한 느낌이 아쉽지만 독일차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다. 잘 닦인 도로에서는 세단급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이 차의 복합 공인연비는 14.5km/ℓ이다. 고속도로에서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고 도심 구간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반복한 결과 14.3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SK텔레콤과 노키아 관계자들이 경기도 분당 SKT 네트워크 기술원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SK텔레콤

SKT-노키아, 소물인터넷 핵심기술 역량키워

SK텔레콤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노키아와 손잡고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의 핵심기술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소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IoT)에서 파생된 용어로 온도, 습도, 무게, 위치 등 소량의 단순 정보를 측정해 처리하는 소물(Small Things)을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SK텔레콤은 LTE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소물인터넷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기존의 1개월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초절전모드(PSM·Power Saving Mode)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시연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PSM은 LTE 기반 소물인터넷 기기에서 다중안테나나 광대역 주파수 지원 기능 등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데이터 송신이 필요한 시점에만 기기의 송수신 기능이 켜지도록 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경기도 분당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에서 LTE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저전력 소물인터넷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미국의 모뎀 제조사 GCT의 소물인터넷 기기와 연동해 전력 소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연했다.

SK텔레콤과 노키아는 PMS 기술을 미아 방지와 물류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위치추적용 기기, 수도나 가스 검침 등에 쓰이는 데이터 수집용 기기 등 다양한 소물인터넷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PSM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 내년 중으로 LTE 상용망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양한 소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가올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한 IoT 플랫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이통3사, 오늘부터 아이폰6S 예약판매 시작

가입고객 대상 쿠폰 제공


SK텔레콤이 애플의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의 출시를 앞두고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예약가입을 실시한다. SK텔레콤 모델이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9일 애플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사의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공식 매장에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의 예약 판매 접수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일은 23일이다.

아이폰6S 시리즈의 당초 예약 판매일은 16일였지만 사흘간 연기됐다. 이를 놓고 애플과 이동통신사간 출시 조건을 놓고 이견이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과열을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한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방통위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공식 판매사이트 'T월드다이렉트'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총 3차에 걸쳐, 공식인증대리점에서는 1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영업마감 시간까지 예약 가입을 받는다. SK텔레콤은 충분한 단말 수량을 확보해 1차 예약 가입 고객은 오는 23일 공식 출시일에 100% 개통, 2차 예약 가입자는 다음 날은 24일 전원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2차 예약 가입 후 개통까지 마무리한 고객에게는 케이스와 액정보호 필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KT는 예약고객 5만명 중 이달 중으로 개통한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교환권을 증정한다. 올레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최대 5만원 단말 할인도 해준다. 실시간 스팸 확인을 할 수 있는 후후 스팸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 KT 가입자가 모델명, 용량, 색상 정보를 입력해 '##5656'로 문자를 보내면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1만명에 한정해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예약 가입 고객이 이달 내로 개통을 완료하면 선착순 5만명에게 U플러스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액세서리 쿠폰을 준다.

/양성운 기자 ysw@

KT-연세의료원

청각장애 청소년 위한 '소리찾기 전시회' 개최


16일 'KT-세브란스 소리찾기 전시회' 개소식에서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한훈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회장 황창규)와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정남식)이 종로구 혜화동 소재의 이음센터(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KT-세브란스 소리찾기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12년 KT가 청각장애아동들의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 안이병원 내에 개소한 'KT꿈품교실'에서 언어 재활과 미술치료 수업에 참여했던 청각장애 청소년 35명의 미술 작품들을 비롯해 이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자료와 꿈품교실 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 '장 밖의 야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장수빈(18) 학생은 "KT 꿈품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위로 받고 꿈을 키워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내가 만든 작품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취업전쟁 돌입

24일 'A매치'… NCS 기반 실무능력 초점

<국가직무능력표준>

한은·금감원 등 6곳
취준생 4만여명 지원
일제히 필기시험 치러
"직무설명서 숙지" 당부



지난 17일 건국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입사시험 필기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필기시험을 치른 기업은행에는 약2만5400여명이 원서를 냈다. 기업은행이 200명 안팎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127대 1이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금융공기업 채용 시즌이 본격화된다. 6개 금융공기업의 총 채용인원은 460명 안팎이다.

◆채용인원 소폭 늘어

오는 24일은 이른바 'A매치 데이(Day)'로 한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른다.

금감원과 한은, 산은, 수은이 청년고용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8~26명 늘렸지만 기관별 채용인원은 40~70명에 불과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 예보의 경우 20명이던 채용인원을 오히려 10명으로 줄였다.

이들 6곳에 지원한 취업 준비생이 4만2000여명에 달해 입사 경쟁률은 90대 1이 넘는다.

10명을 뽑는 예보에는 1917명이 지원자해 192대 1 업계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40명을 채용하는 수출입은행에는 3400여명이 몰려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70명을 채용하는 한은과 산은의 경쟁률은 각각 58대 1, 57대 1을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을 뽑는 금감원에도 3300명 이상이 지원, 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본격 도입

금융공기업이 같은 날 시험을 보는 관행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한은이 시험 날짜를 공고하면 금감원 등 다른 금융 공기업이 따라오는 방식이다.

A매치는 원래 축구에서 정식 국가 대표팀 간 경기를 의미하는 용어이나, 같은 날 시험을 치는 금융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구직자들의 쟁탈전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돼왔다.

이번 A매치의 최대 화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본격 도입이다.

정부가 과도한 스펙 쌓기 부담을 덜어주고 직무에 맞는 인재 채용을 위해 지난 3월 130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NCS에 기반을 둔 채용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면서 금융공기업 대다수가 NCS를 적용하기로 했다.

NCS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능력을 국가에서 산업별·수준별로 표준화해 정리한 것. 정부는 지난해 NCS 개발을 완료했다.

NCS는 산업별로 24개의 대분류와 77개의 중분류, 227개의 소분류, 857개의 세분류로 나눠 능력별로 최하 1수준에서 최고 8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과 산은·수은·예보 등은 모두 올해 NCS에 따른 전형을 준비했다. 한은 역시 공식적으로는 NCS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실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 전형을 실시한다.

금융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NCS 도입 이전에도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수험생을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직무설명서'를 숙지해 해당 직종에 대해 세세히 파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직무설명서는 각 기관 채용 홈페이지와 NCS포털(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채널 다변화 대응… 영업 경쟁력 절실"

현대해상 창립 60주년

새로운 60년 대계 향해 도약
인력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이 지난 16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16일 광화문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창립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60년 대계를 이뤄 나가자고 결의했다. 기념식에는 약 300여명의 임직원과 하이플래너가 참석했다.

이날 이철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60주년까지 이어져 온 오늘의 영광은 현대해상 가족들 덕분"이라며 "새로운 60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경쟁력 강화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이어 "보험회사의 본업 경쟁력은 고객 수요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좋은 상품 개발을 통해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영업이익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자산운용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하는 채널 다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 경쟁력이 절실하다"며 "영업체질 개선과 멀티채널 연계를 기반으로 한 채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력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1955년 '동방해상보험'이란 사명으로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출범, 1985년 10월 사명을 현재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꿨다. 지난 2009년 자산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7월 총자산 30조원, 운용자산이 24조원을 각각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보험개발원-베트남 보험감독청, 업무협력 협약 체결

김수남 보험개발원 원장(왼쪽)이 베트남 ISA와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5일 베트남 보험감독청(ISA)과 중장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가격산출 기법 선진화 협력, 보험 분야 공동조사와 연수, 통계자료 공유 등 상호간 공조를 약속했다. /보험개발원

거래소, 26일부터 등유도 거래

유통구조 개선·안정화 기대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현물시장인 KRX석유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등유를 상장해 거래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RX석유시장은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개설돼 현재 '경유'와 '휘발유'가 거래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KRX석유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은 1518만 리터로 국내 경유와 휘발유 소비량의 각각 10.9%, 9.1%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KRX석유시장 가격은 정유사 장외공급가격보다 경유 23.5원, 휘발유 24.1원 낮아 국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등유의 장내거래로 등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유는 주로 난방용 연료로 사용돼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닌다. 지난해 국내 등유소비량은 1543만 배럴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등유의 KRX석유시장 상장으로 자동차 및 난방 등에 소비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에 대한 공개시장이 완성됐다"며 "향후 거래소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KRX석유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산업은행, 말련 합금철 사업 금융주선 완료

KDB산업은행은 국내 기업 SAC가 핵심시설을 수주·공급하는 말레이시아 합금철 플랜트 사업에 3억8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자문 주선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애초 유럽계 은행이 금융자문 주선 은행을 맡았으나, 금융조달을 지연시키게 되자 산업은행이 지난 2월부터 인수해 마무리지었다.

프로젝트 금융에는 산업은행과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MEXIM), 메이뱅크(MayBank), 뱅크오브차이나(Bank of China)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고,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수출보험을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SAC와 같은 기술력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 건설수주 활성화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동시에 말레이시아 수은 등 주요 은행과의 협력으로 아세안(ASEAN) 지역 프로젝트금융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보험, 사전규제 풀고 사후감독 강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양적→질적 경쟁 유도
표준약관·위험률 폐지
상품·자산운용 자유화
가입 절차도 단순하게

금융당국의 보험규제가 현행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재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은 약관준수 사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을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해 상품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바꾼다. 사전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사가 자본을 조달하는데 다양한 방식을 활용토록 했다.

현행 법규상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도 단순해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 법규상 절차를 완화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단순화하거나 과도한 확인·서명방식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전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부실상품 판매 등에 대한 보험사의 사후 책임은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은 법규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상품변경권고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엄중 부과하는 등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덤핑,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부채시가평가(LAT)제도를 강화한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을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폐지되고 사후적 부당행위나 부실경영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도 없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매와 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시대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와 표준이율 폐지 등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는 보험료 리턴 기능으로 생활자금과 건강까지 보장받는 신한생명 (무)VIP건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신한금융투자
(무)VIP건강보험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보험료 리턴 기능으로 생활자금과 건강까지 보장받는 신한생명 (무)VIP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무)VIP건강보험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종료 후 매월 그 동안 낸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0만원을 낸 가입자라면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50만원씩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은 100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매월 돌려받는 자금으로 생활비 마련도 가능하고 동시에 보장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보장됨은 물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2대질병, 5대질병 진단시 또는 50%이상 장해 진단시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오해영 투자상품부 부장은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보장은 100세까지 가능한 (무)VIP 건강보험 상품은 증권사를 찾는 고객 중 질병에 대한 보장과 함께 자산 관리까지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추천 할 만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지점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1588-0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中 GDP 부진 악재 vs 美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등락 이어갈 전망
GDP, 2분기보다 소폭 둔화
배당주에 긍정적 접근 필요

미국이 금리인상 시점을 늦출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주(19~23일) 코스피는 1980~2050선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 실적 기대감, 달러 약세에 따른 신흥국 통화 반등 등을 지수 상승요인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 부진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지수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지난주(12~16일) 코스피는 전주대비 0.53% 상승한 2030.26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주 초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올해 금리인상은 약속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다. 주 중반 중국의 물가지수 부진 소식에 하락한 지수는 주 후반 중국 정부의 추가부양정책 기대감에 상승해 강보합 마감했다.

◆중국·한국 GDP 성장률 둔화 예상

이번주에는 ▲중국 3분기 GDP 성장률(19일) ▲미국 부동산 지표(22일) ▲한국 3분기 GDP 성장률(23일) 등 굵직한 지표발표와 포스코·제일기획(20일), 신한지주(21일),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현대제철·KB금융·KT&G(22일), SK이노베이션·세아베스틸·현대건설·하나금융지주(23일) 등 실적발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6.8%를 충족시키면서도 2분기 7.0%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3분기 발표된 중국 수출 등 대외지표와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대내지표가 동반 부진해 3분기 GDP도 2분기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며 "중국 GDP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치인 2.7%를 밑도는 2.5%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교역량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재고 부담이 높아 향후 수출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의 소비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이 둔화되고 있어 GDP 지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FOMC 앞두고 관망세 이어져

오는 27~28일 예정된 10월 FOMC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베이지북(Beige Book) 발표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주식 시장에선 관망세가 점쳐지고 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까지는 미국 금리인상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며 "중국 3분기 GDP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어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와 수출주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시장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승희 KDB증권 연구원은 "소비재 업종 내 수출주인 IT, 자동차, 화장품, 일부 음식료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에도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어닝시즌의 분위기는 수출주의 환율 효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주의 상승동력은 다시 약화되는 순환참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보배 기자



Seoul Metro
서울메트로

34 Seoul Metro 1981-2015 Anniversary

명장의 서비스로 24시
명장의 안전으로 365일 서울메트로마이스터가 함께 합니다

10월 넷째 주 수도권 분양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아파트명
10/19 (월)	접수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B3(공공분양) 1순위
			하남시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 (~10/21)
			화성시	신동탄파크자이 2순위
		인천	남동구	인천서창2(2 B/L)공공임대 2순위
	발표	경기	시흥시	시흥목감(국민임대A-1 B/L)
	계약	경기	수원시	수원권선꿈에그린(뉴스테이) (~10/21)
			하남시	하남미사(공공임대A-4 B/L) (~10/21)
10/20 (화)	접수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공공분양B-3 B/L) 2순위
	발표	경기	김포시	e편한세상한강신도시2차 (공공분양)
	계약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10/22)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아이파크 (~10/22)
10/21 (수)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문형양우내안애 1순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B-6 B/L) 1순위
			화성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1순위
	발표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5차(Ac-03 B/L)
10/22 (목)	접수	서울	강남구	청담린든그로브 1순위
		경기	광주시	오포문형양우내안애 2순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B-6 B/L) 2순위
			화성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2순위
		인천	서구	인천가좌두산위브 1순위
	발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경기	수원시	수원호매실(공공임대B-3 B/L)
			평택시	평택장당동제일풍경채3차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동광뷰엘
10/23 (금)	오픈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송파구	힐스테이트에코문정♣
			은평구	은평뉴타운꿈에그린♣
			은평구	은평뉴타운꿈에그린
		경기	광주시	광주센트럴푸르지오
			김포시	한강신도시이랜드타운힐스
			시흥시	시흥은계보금자리(공공분양S-1 B/L)
			오산시	오산세교자이(B-5 B/L)
			용인시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용인시	용인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파주시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A-25 B/L)
			평택시	평택소사벌지구우미린레이크파크
			평택시	평택송담지엔하임1차(79 B/L)
			평택시	평택송담지엔하임2차(80 B/L)
		인천	서구	가정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5 B/L)
			서구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M-1 B/L)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접수	서울	강남구	청담린든그로브 2순위
			송파구	힐스테이트에코문정♣ (~10/27)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공공분양A-20 B/L) 1순위
		인천	서구	인천가좌두산위브 2순위
	발표	경기	하남시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
			화성시	신동탄파크자이

* 표시는 오피스텔 /자료:부동산114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전주比 44.11%↑

10월 넷째 주(19~25일) 분양시장에는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27곳에서 1만8835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1만6441가구다. 전주 1만1408가구보다 44.11% 증가했다.

지방은 17곳에서 1만405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과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등 10곳 603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법조타운 코 앞… 강남까지 20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청약
복층·테라스형 등 특화 설계
KTX 수서역 개통 땐 사통팔달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투시도.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8-4블록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청약에 들어간다.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은 지하 6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7~37㎡ 오피스텔 531실로 구성된다.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위주의 평면으로 구성했고 복층형·테라스형 타입 등의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문정지구 핵심 부지인 상업시설 용지 블록 중심부에 위치하며 법조타운과 인접해 있다. 법조타운에는 내년 준공 예정인 동부지방법원과 2017년 준공 예정인 동부지방검찰청이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반경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송파대로와 가깝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 수서~분당고속도로 장지IC,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이 개통되면 기존에 구축된 경부선과 연계돼 서울,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KTX 수서역 노선은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신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보 1분 거리에 지하철 위례~신사선 법조타운역(가칭)이 2021년 개통 예정이다.

건물 외관은 'ㅈ'자형태로 지어져 인접 건물들과의 간섭,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오피스텔 타입 구성은 일반적인 스튜디오형 외에 전체의 약 48%를 천장고 3.2m의 복층형으로 구성했다. 약 10%는 최근 인기가 높은 테라스형으로 설계했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선보이는 에너지절감형 주택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지하 2층, 지상 17~36층 9개동, 전용면적 84~129㎡ 886가구 규모다. 평형별로는 ▲84㎡ 644가구(A·B·C·D) ▲99㎡ 232가구 ▲129㎡ 10가구(A·B) 등 중소형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최초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1++'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건설돼 전기요금에서 50%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최첨단 에너지 생산 방식인 태양광전지·연료전지(도시가스를 활용), ESS 에너지저장시스템(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주로 밤시간에 사용해 에너지를 절감) 등을 갖추고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와 단열재, 고효율 LED 조명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대별로 에너지 절약과 실내환경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TEEM 시스템) 등 각종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전세가 13%↑… 10년 만에 최고 상승

전년동기 6.68%의 두배 달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 13% 상승해 최근 10년간 연간 전세 변동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전세 아파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자 전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10월 3주 서울 아파트 전세는 0.31% 상승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는 13.33% 상승해 전년 동기 전세 변동률 6.68%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추석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 0.12% 변동률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에 대한 괴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나타났다.

신도시는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며 0.03% 올랐고 경기·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한 0.05%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성북 0.36%, 강서 0.33%, 관악 0.26%, 노원 0.20%, 양천 0.18%, 금천 0.15% 순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 0.10%, 산본 0.07%, 판교 0.05%, 평촌0.05%, 파주운정 0.05%, 동탄 0.02%, 분당 0.01%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과천 0.19%, 안산 0.15%, 광명 0.12%, 의정부 0.10%, 시흥 0.08%, 고양 0.07%, 안양 0.06%, 인천 0.05%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 시장도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성북 0.84%, 관악 0.63%, 동대문 0.60%, 양천 0.59%, 서대문 0.56%, 도봉 0.52% 순으로 전세가 상승했다. 신도시는 광교 0.24%, 일산 0.21%, 평촌0.20%, 산본 0.17%, 중동 0.11%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인천은 의정부 0.37%, 고양 0.25%, 광명 0.23%, 용인 0.22%, 남양주 0.18%, 이천 0.16%, 인천 0.14%, 구리 0.14%, 부천 0.13% 등이 상승한 반면 과천은 0.19%로 하락세를 보였다. /박상길 기자

대림산업

성남 상대원2구역 정비 8390억원에 단독 수주

대림산업이 성남시 상대원2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총 8390억원에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17일 성삼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단독으로 수주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다. 상대원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0층, 48개동 총 5304가구(임대 796가구 포함)로 조성된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에서 총 사업비 4402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성남산업단지와 인접해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노후사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입주기업 6000개 이상, 근로자 12만명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귀한 몸 된 빈병… 속타는 주류업계



골칫거리 취급을 받던 빈병이 귀한 몸이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을 돌려주면 받는 보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가정과 고물상, 빈 병 수거업체 등이 빈 병 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빈병이 사라지면서 주류 생산업체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증금·취급수수료 인상 발표에 회수율 18%p↓
주류산업協 "술값에 부담 반영… 10% 오를 것"

1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주류회사의 평균 빈병 회수율은 지난해 9월 96.8%에서 지난달 78.9%로 18%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주류산업협회 측은 "정부가 빈병 보증금을 올린다고 발표한 뒤 문제점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며 "특히 가정용 주류를 취급하는 도매상들이나 일부 빈병 수거업체에서 빈병 납품을 미루면서 회수율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빈병 회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주병 보증금은 개당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으로 인상된다. 취급수수료의 경우 소주병은 16원→33원, 맥주병은 19원→33원으로 오른다.

빈병 보증금은 음료수 가격에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냈다가 나중에 병을 가게에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 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도매·소매상에게 빈 병을 대신 수거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빈병 회수율이 상승,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의 85%에서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인상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빈병 사재기로 시장에서 빈병이 사라지면 주류 업체들이 생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주류산업협회는 최근 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발송했다.

특히 주류산업협회 측은 빈병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용기가 반환되지 않으면 빈병 보증금 때문에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산업협회 측은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맥주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출고가가 약 10%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출고기준으로 4888억원, 유통업계와 음식점 등을 포함하면 1조989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류산업협회는 "사전 실태조사, 객관적인 실증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값싼 외국산 맥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MPK그룹, 中서 미스터피자 '100호점' 오픈

1년새 폭발적 성장 이뤄

MPK그룹(회장 정우현)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는 18일 중국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에 중국 100번째 매장인 시후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 100호점 오픈은 지난해 10월 말 50호점을 개점한 후 채 1년도 안 돼 이뤄낸 성과다. 2013년 초 24개점을 시작으로 매년 2배 이상 매장 수를 늘려가며 최근 3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시후점은 하루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중국 10대 명승지인 시후(西湖)호수 인근에 자리 잡았다. 1층 134㎡(약40평), 2층 176㎡(약53평) 규모다.

미스터피자는 시후점 오픈과 함께 항저우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경제권역 중 하나인 저장성 공략을 본격화한다. 이달 말까지 항저우 따샤백화점을 비롯해 항저우 인근 도시 닝보에 장베이완다점과 인샹청점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중국에서 지난 16년간 끈기와 열정을 통해 올해 100호점 돌파와 함께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중국을 넘어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미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외식문화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성료

올해로 15주년 맞아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한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의 서울대회가 10월 유방건강의 달을 맞아 18일 여의도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유방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적인 행사다.

이날 1만여 명의 참가자의 성원으로 서울 여의도 일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국내 최대 핑크리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라네즈 전속모델인 송재림와 한율의 전속모델 임지연이 참석해 여성 건강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

전국한우협회

원산시 표시위반 업소 대대적 척결나서기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허위로 유통·판매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중 수도권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소고기는 한우,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를 하면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과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다보니 결국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동서식품, '카누' 신규CF 공개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KANU)'를 찾는 사람들을 콘셉트로 하는 카누 신규 TV광고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편을 18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카누의 품질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동서식품

"사람 중심 경영이 기업을 살린다"

맥도날드 대표 초청 강연



"고졸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매장 크루에서 시작해 최대 100명의 직원까지 관리하고 이끄는 매장의 점장이 된 맥도날드 직원이 있습니다."

조 엘린저 한국맥도날드 대표(사진)가 지난 16일 진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2015 K-Move 세미나'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맥도날드의 글로벌 성공 신화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며 사람의 힘과 사람 중심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맥도날드는 학력,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 없는 열린채용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찾은 시니어 직원,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찾은 주부 직원, 제약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 장애인 직원들의 사례 등을 나타냈다.

/정은미 기자

면세점 승패, 롯데 경영권 분쟁 바로미터

재승인 성공
호텔롯데 상장 작업 탄력
동주, 지분 희석… 지배력↓

재승인 실패
동빈, 경영권 방어 어려워
롯데홀딩스 지분 확보 관건

내달 7~8일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입찰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롯데가 올해 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2곳(소공동 본점·잠실 월드타워점)의 면세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경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는 경영권 분쟁에서 힘을 잃게 된다.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약속한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사업부로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호텔롯데 매출의 80%에 달한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신 대표가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은 희석되며 신 대표의 한국 롯데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신 대표는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기업공개(IPO)를 하며 신주를 발행한다면 자신의 확보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며 신 대표가 51%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 본인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자처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에 대한 지배력도 줄어든다.

신 대표는 광윤사와 본인 지분을 더해 한·일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9.7%를 확보했다. 신 대표 측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100% 중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하면 자신이 가진 의결권은 55.8%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롯데홀딩스가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율이 줄어든다면 일본 롯데의 한국 롯데 지배력이 줄어 롯데홀딩스를 통해 완벽한 경영권 탈환을 꿈꾸는 신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면세점 재승인이 실패한다면 신동빈 회장의 타격이 크다.

신 회장이 가진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4% 수준으로 사실상 본인이 가진 의결권은 미미하다.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0%) 등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

현재까지는 신 회장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타 주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2조6000억원 매출의 면세사업권 재승인에 실패한다면 신 대표의 회유에 넘어가는 주주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신 회장은 1500억원 규모의 면세점 상생전략 등을 발표하며 면세점 승인에 직접 나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 대표는 소송전부터 시작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앞세워 다방면으로 신 회장을 압박해 가고 있다.

18일 재계 한 관계자는 "(신 대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 면세점 승인을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면세점 재승인이 곧 호텔롯데 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일본 롯데의 한국 롯데에 대한 지배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신 대표가 가장 주인행세하기 좋은 호텔롯데의 본인 지분과 일본 지분이 희석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2롯데사태를 일으킨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 저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내년 상반기 트렌드 '자유·모던'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가 전개하는 영 캐릭터 캐주얼 '럭키슈에뜨'가 지난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6년도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럭키슈에뜨의 2016 봄·여름 컬렉션은 본보야지(Bon Voyage)를 테마로 젊고 모던한 여성들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특히 인생을 즐기는 방법으로 여행을 택한 여성들이 공항과 기내, 해변, 도심을 여행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룩을 선보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그룹 '간부 시험장' 5000명 집결… 수능장 방불

47개 계열사 2400여명 응시
선·후배 치열한 응원 진풍경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18일 오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간부승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시험에는 롯데백화점, 마트, 건설 등 47개 계열사의 약 2400여 명의 직원들이 응시했다.

선·후배 등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이날 5000여 명의 롯데 직원들이 해당 장소에 모였다.

시험장에는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황각규 운영실장을 포함해 롯데슈퍼,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하이마트 등 주요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방문해 수험생을 격려했다.



사진설명.18일 오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간부승진 자격시험이 진행됐다. 이날 시험장에는 응시자 2400여 명과 선·후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직원까지 총 5000여 명의 롯데 계열사 직원들이 모였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지난 1983년 부터 간부(과장직급 이상) 승진 대상인 3년차 대리직급을 대상으로 매년 승진 자격시험을 실시해 왔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영전략, 조직행동, 회계원리, 핵심가치 등 총 4가지 과목으로 치러진다.

올해 33회째로 매년 응원전도 치열하다. 좋은 응원석을 차지하기 위해 추첨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전 특별 휴가도 제공하고 있다.

롯데그룹 인사실 기원규 상무는 "간부승진 자격시험은 중간관리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 경영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입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응원 이벤트는 직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크라운-해태제과 '국제 BMX 대회' 성료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가 주최하고 대한사이클연맹과 한국BMX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5 크라운-해태제과 국제 BMX 대회'에서 일본 선수 마쯔시다 타츠미가 우승을 차지했다.

타츠미는 지난 17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제천 아시아 BMX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38.26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상금 7000달러를 거머쥐었다. 남자부 2위는 샤리후딘 토니(인도네시아) 3위는 알레잔드로 김(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이어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카리스마 노반다 엘가(인도네시아)가 우승했다. 2, 3위는 각각 대한민국 국가대표 박민이 선수와 리바타 미키(일본)에게 돌아갔다. 특히 박민이 선수는 엘리트 우먼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불모지였던 국내 BMX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15 크라운해태 국제BMX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올해로 5번째를 맞은 '크라운-해태제과 국제 BMX 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식인증한 국내 유일의 국제 대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마운티아 '서울 자전거 축제' 텐트 40동 제공

동진레저(대표 강태선)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가 15~17일까지 열린 '2015 서울 자전거 축제'에 텐트 40동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이번 '2015 서울 자전거 축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서울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마운티아는 이번 축제 부대행사로 서울광장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된 자전거 캠핑에 마운티아의 프리덤텐트와 아틀라스텐트 각각 20동씩 총 40동을 제공했다.

LG생활건강, 男 안티에이징 '더젠틀 포맨'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용석)의 더페이스샵은 브리티쉬 에센셜 콤플렉스를 함유해 거칠고 지친 남성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가꿔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더젠틀 포맨'(사진)을 18일 출시했다.

더젠틀 포맨은 깔끔하고 젠틀한 유러피안 감성을 콘셉트로 애프터쉐이브, 스킨, 로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열을 가하지 않아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하고 식물 고유의 향을 그대로 담아내 향기로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방간 환자 80% '비알코올성'

이대목동병원 김태헌 교수 "장기간 방치 땐 간경변 진행 식생활 서구화 소아 발병↑"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간의 유병률이 최근 국내에서도 증가되고 있다.

지방간은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뉜다.

김태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사진)는 "지방간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진단을 받더라도 다른 간질환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간 오해와 진실

▲흔한 질환이라서 큰 문제 없다?
– 장기간 방치 땐 만성 간염·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과음, 과체중과 연관된 단순 지방간은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으로 대부분 회복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 장기간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 지방간에 염증이나 섬유화 소견이 더해진 지방간염은 치명적인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지방간?
– 탄수화물·당분 과다 섭취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불러

일반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고지방 식이로 인해 발병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도한 탄수화물·당분 섭취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군(상위 33%)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낮은 군(하위 33%)에 비하여 남성은 약 1.7배, 여성은 약 3.8배 높았다고 밝혔다.

▲지방간은 나이 들면 생기는 병?
– 어린이 지방간 유병률 증가 추세

지방간은 흔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방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소아·청소년에서 지방간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비만학회는 소아 지방간 환자의 2~10%에서 간경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방간은 애주가의 질환이다?
– 지방간 환자 80%가 비알코올성

흔히 지방간은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한간학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지방간 환자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 또한 가파르다.

▲지방간은 간경변·간암만 조심하면 된다?
–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 3.5배 높아

대한간학회가 실시한 '지방간 및 간질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5%가 지방간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간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와도 연관성이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성의 질환?
– 알코올 간질환 중 여성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2%

알코올성 지방간은 직장 생활로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 중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여성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1년)에 따르면 여성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여성 알코올 간질환 환자의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산업현장 근로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

안전보건공단 지난해 업무상 질병자 조사

지난해 산업 현장의 업무상 질병자 10명 중 7명은 신체 일부분을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업무상 질병자 7678명 중 67.39%에 해당하는 5174명이 근골격계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368명(45.8%)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1908명), 건설업(559명) 등의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3431명의 질환자가 발생해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발생 비율도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자동차 제조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약 57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업종별 제조업 45.8% 최다
연령별 40대 발생비율 높아

스트레칭 포스터·동영상 등
공단, 사업장 5700곳 보급

또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량물 취급주의·건강스트레칭 포스터와 장년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자료, 동영상 등을 사업장 방문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3353개소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비용 235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은 2010년 이후 매년 5000명대 수준으로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년근로자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 예방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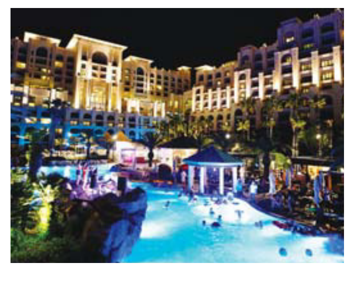
/유선준 기자



동화 속 주인공들 한 자리에… 1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프린세스 퍼레이드'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롯데월드몰 1주년 기념 행사로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동화 속 캐릭터 들이 모여 롯데월드몰을 순회하는 무도회 퍼레이드다. 롯데자산개발은 내달 중순까지 롯데월드몰에서 주말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롯데자산개발

제주여행, 항공~조식까지 '플라잉 투 제주'

롯데호텔제주 12월 16일까지 에어텔 패키지



롯데호텔제주(대표 송용덕)는 올해 12월 16일까지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플라잉 투 제주'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플라잉 투 제주는 2박 상품으로 조식과 브런치 뷔페가 포함된 에어텔 패키지다.

슈페리어 마운틴 뷰 객실 2박, 김포~제주 구간 아시아나 왕복 항공권 2인, 조식 2인 1회, 풀사이드 브런치 뷔페로 구성됐다. 또 피트니스 클럽 2인 무료, JDC 공항 면세점 10% 할인권, 무료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의 특전도 함께 준비된다.

가격은 79만원부터다.

/김성현 기자 minus@

보건복지부,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강화

뽀로로·타요 활용 캠페인

미취학 아동의 흡연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는 3~7세 미취학 아동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자 '다 함께 노스모킹!'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연령별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담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캠페인은 미취학 아이들의 인지도가 높고 생활규칙·예의범절·건강습관 등에 가장 어울리는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타요와 정의로운 캐릭터 아이쿠·번개맨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동국대, 30일 다문화 상생 학술대회

이주민 인권·시민교육 등 토론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다문화 상생을 위한 다문화학(이민학)의 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연다.

관련 연구자 10여 명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서 이주민 인권·다문화 시민교육·통합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조동기 동국대 교수가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인권 체제', 변종헌 제주대 교수가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병도 한국외대 교수가 '동남아 사회문화의 특성과 다문화 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은숙 연구소장은 "다문화학은 이민정책·교육·국제지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학문"이라며 "이번 행사가 국내 다문화학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star bag

우리 연애해요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조현영**이 알렉스와 열애중이다. 레인보우 소속사 DSP미디어는 "당사 아티스트 조현영과 알렉스는 지인 소개로 만나 한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15일 전했다.

옥스팜 홍보대사



배우 **이제훈**이 영국계 국제구호개발기관 옥스팜(OXFAM)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제훈은 옥스팜과 함께 재난재해, 분쟁, 구조적 불평등, 공정무역 등의 이슈를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단막극 안방 복귀



배우 **이광수**가 SBS 단막극 '퍽!'의 주인공을 맡는다. 지난해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이후 1년 만의 안방 컴백이다. 거칠고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조준만 역을 맡았다. 11월 초부터 촬영 예정이다.



단독 콘서트 개최

걸그룹 **소녀시대**가 다음달 21~22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네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다. 약 2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국내 단독 공연이다. 다채로운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



日 오리콘 차트 1위

걸그룹 **AOA**가 지난 15일 일본에서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 '에이스 오브 엔젤스'로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인 '오 보이(Oh BOY)'를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돼 있다.

아역 과도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영화 '비밀' 김유정

한 소녀가 있다. 늘 밝은 웃음으로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다. 그러나 그 환한 웃음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살인자의 딸로 태어났으나 그보다 더 큰 비밀을 간직해야 했던 소녀. 김유정(16)이 영화 '비밀'(감독 박은경·이동하)에서 연기한 정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비밀'은 10년 전 일어난 어느 살인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살인자의 딸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온 형사 상원(성동일), 자신의 실수로 약혼자를 죽음으로 내몬 철웅(손호준), 그리고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고생 정현(김유정)이 겪는 갈등과 복수와 용서, 화해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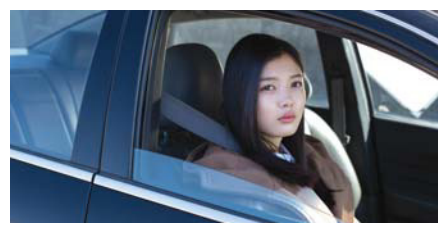
'비밀'의 정현은 김유정이 그동안 보여준 밝고 발랄한 모습을 떠올리면 색다른 변신이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유정은 '비밀'에 대해 "도전보다 배우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매 작품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는 김유정에게 '비밀'은 자신 안의 또 다른 모습, 그 중에서도 내면의 어두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영화 속 정현이 자신의 나이와 같다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 "정현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같으니까 정현의 입장에서 더 잘 생각할 수 있었고요."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이기에 감정 표현이 쉽지만은 않았다. 정현의 속마음이 아주 잠깐씩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그 감정을 보여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연기하는 동안만큼은 정현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철웅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음주 장면,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20대 연기도 '비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김유정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김유정은 이들 장면 또한 정현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연기했다. "20대 연기는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어색하더라고요(웃음). 하지만 저는 그 어색함이 정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현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자라났다는 것이 느껴지길 바라며 연기했죠."



> 살인자의 딸, 비밀 간직한 소녀
> 내면의 어두움 꺼내는 좋은 경험
>
> 작품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해
> 변신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



김유정은 "밝은 캐릭터도 어두운 캐릭터도 배울 점들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캐릭터 각각의 매력이 다를 뿐 그 깊이나 넓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해보고 싶다"는 뜻에서다. 그 말처럼 김유정은 작품마다 캐릭터의 색깔을 달리하며 연기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웹드라마 '연애세포'에서는 밝고 명랑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다. 현재 촬영 중인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가제)에서는 4차원 캐릭터로 엉뚱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10대 후반에 접어든 만큼 아역배우와 성인 배우의 과도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김유정은 "지금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며 "과도기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싶지도 않고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지도 않다"며 웃었다.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 후회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제 나이대에 맞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요. 과도기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테니까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준기도 할리우드 진출

'레지던트 이블6' 출연 구체적 배역은 비공개

배우 이준기(사진)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 '레지던트 이블6: 더 파이널 챕터'(가제)에 출연한다.

수입배급사인 UPI코리아는 17일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최종편인 '레지던트 이블6: 더 파이널 챕터'에 배우 이준기의 출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준기는 최근 영화 주인공 앨리스 역의 밀라 요보비치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 포착돼 팬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화 촬영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체류 중이다. 이번 영화에서 맡은 배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2002년 시작됐으며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레지던트 이블6: 더 파이널 챕터'는 시리즈 6번째 작품이자 최종편으로 제작된다.

영화는 지난 8월 촬영을 시작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촬영을 진행 중이다. 2017년 1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AD-418 LIKE A FLAME LIKE A WIND
뮤지컬
바람처럼 불꽃처럼
2015.10.31-11.29 | 유니버설아트센터
평일 8시 /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한나 브라이언 전수미 박형규 이기동 여운 이용진 김고운
조유신 김영호 양지원 최정은 이재홍 박지훈 조은희 송임규 박보선 김예진 김수영 엄정욱 안준혁 권세정 최가현 김혜미 김서영 전소영 태빈
작,연출 김한나 | 작,편곡 황지혜 | 안무감독 박경수 | 프로듀서 HENNY KIM | 협력 프로듀서 박주형 | DRAMA TRUGY 이기동 | 기술감독 이슬기 | 무대감독 배성식 | 조명디자인 조성오 | 음향 PLANET SOUND | 음향디자인 이해원 | 무대디자인 홍수화
의상디자인 서보영 | 소품디자인 이경하 | 분장디자인 김종한 | 무대제작 수 무대 | 무대조감독 임규호 권예주 | 음악조감독 양예은 | 안무조감독 김순주 | 촬영 뭉치스튜디오 | 포스터디자인 이효민 | 슈퍼바이저 김경진 | 제작조감독 이태준 | 컴퍼니매니저 김현민
제작 공연그룹 드림뮤드 | 제작지원 WA 와뮤지컬그라운드 파프프로덕션 | 후원 깜덴드림 | 홍보마케팅 Az artz 아츠
공연문의 02-921-9871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본 공연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순수창작물임을 명시합니다.

새로 나온 책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사계절출판사/고명섭 지음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재해석한 청소년 소설이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와 미노스의 황소 미노타우로스의갈등과 대결을 통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시대의 영웅과 괴물의 내적 욕망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철학적 사유로 풀어냈다.

평소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져온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고명섭씨의 작품이다. 작가는 이번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에서 그리스 신화 책들과 신화학, 분석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집을 짓고 인물들의 내면을 탐색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를 따라 모험하다 보면 방대한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작가는 신화 속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을 끝까지 파헤친다. 172쪽, 9000원. /장병호 기자 solanin@

푸드트래블-제주 미식을 여행하다

컬처그라퍼/고연경·론리플래닛 코리아·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지음



‘푸드트래블-제주 미식을 여행하다’는 현지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은 물론 가장 완벽한 ‘미식 여행’을 소개하는 책이다. 또한 마시고 요리하고 구경하고 담아오며 머물고 여행하는 방법까지 모두 수록했다. 다른 제주 여행서와는 차별화된 제주 즐기기를 만날 수 있다.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CS컨설팅&미디어/장용석·김회성·황정윤·유미현 지음



자본주의의 한계를 경험한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 성장, 공생 발전,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경제와 같은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국내 현실을 용기 있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다.

어느 철학과 자퇴생의 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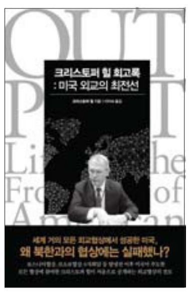
나무옆의자/김의 지음



그 어디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력한 한 청춘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김의 작가는 소외된 자들끼리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느슨한 환상에 찬물을 끼얹으며 구경하기 불편한 한 편의 지옥도를 재현해낸다.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품이다.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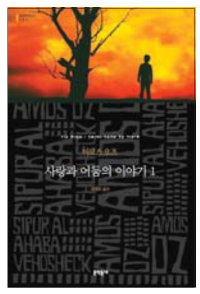
메디치미디어/크리스토퍼 힐 지음·이미숙 옮김



2004년 9월 주한 미국대사에 부임했던 크리스토퍼 힐의 회고록이다. 그는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및 MD 구축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돼 있던 상황에서 기존 대사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로 한국 사회를 파고들었다. 흥미로운 지식과 교양, 그리고 생생한 외교현장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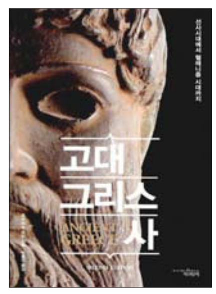
문학동네/아모스 오즈 지음·최창모 옮김



현대 히브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아모스 오즈의 작품이다. 사실과 허구가 어우러진 자전적 소설로 유대인 박해의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개인사를 통해 아름답게 풀어냈다고 평가 받는 걸작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사·고대 로마사

책과함께/토머스 R. 마틴 지음·이종인 옮김.



고전학 교수 토머스 R. 마틴의 ‘고대 그리스사’와 ‘고대 로마사’가 동시에 출간됐다. 저자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간결한 입문서로 정리했다. 그리스 문명의 뿌리부터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1300년 동안의 고대 로마 이야기를 함께 접할 수 있다.

TV 하이라이트

몸매 성형설에 대한 대답은?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모델 장윤주가 출연해 500인의 MC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장윤주는 “나는 자연스러운 멋을 가진 여자”라며 몸매 성형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털어놓는다. 모두를 놀라게 할 신체의 비밀도 고백한다. 또한 “나는 사실 배 나온 모델”이라며 “오늘도 많이 먹고 나왔다”는 말로 모델답지 않은 털털한 모습도 보여준다.

/정리=장병호 기자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30분

걸그룹 멤버의 냉장고 2편이다. EXID 하니는 인피니트 숙소 냉장고에 버금가는 냉장고로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젓갈을 이용해 오세득과 김풍이 요리 대결을 펼친다.



◆ MBC ‘화려한 유혹’

오후 10시

일주(차예련)와 무혁(김호진)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은수(최강희)는 의문의 전화 속 상대에게 남편과 석현(정진영)이 함께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물어본다.



◆ EBS ‘세계테마기행’

오후 8시50분

가을의 낭만이 가득한 캐나다 동부로 떠나는 여행기 그 첫 회다.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도심 한복판의 리도 폭포 등을 찾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히든싱어 4 (재) 10:50 디데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30 코미디 빅리그 (재)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5:00 진짜 사랑 시즌1 06:00 소년탐정 김전일 – 리얼 사건파일 06:55 식신로드 07:55 마츠리 시리즈 08:50 영상앨범 산 09:25 괴기 연애작전 10:05 Wonderful 일본 여행 (재) 11:00 THE 세계유산 11:55 고독한 미식가 시즌2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매거진 2580 (재)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2:05 디데이 (재)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20 두번째 스무살 (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3:15 루즈벨트 게임 14:10 소년탐정 김전일 – 리얼 사건파일 15:10 괴기 연애작전 15:35 THE 세계유산 16:10 해피라이프 17:15 영상앨범 산 17:45 일본낚시여행
18:00 6시 내고향 18:50 4000회 특집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 24:3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글로벌24 18:25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MBC 다큐스페셜 24:10 MBC 뉴스 24 24: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45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아궁이 (재)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두번째 스무살 (재) 24:20 두번째 스무살 (재)	18:15 루즈벨트 게임 19:15 와카코와 술 20:10 진짜 사랑 시즌1 21:05 여성 룰 22:05 고독한 미식가 시즌2 22:45 와카코와 술 23:15 형사 110킬로 시즌1 24:10 익명탐정

19일(월)

한국, 강호 브라질 격파… 16강 청신호

U-17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서 장재원 결승골 1-0 승 B조 선두로 올라서 21일 기니와 2차전


18일(한국시간) 칠레 코킴보의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FIFA U-17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한국의 장재원이 브라질의 프란치스코 산체스와 볼 경쟁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꺾었다. 브라질 U-17 대표팀을 상대로 한 역대 첫 승리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칠레 코킴보의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34분 장재원(현대고)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유주안(매탄고)과 이승우(바르셀로나)를 최전방에 배치한 한국은 전반 8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기습적으로 때린 김정민(금호고)의 중거리포가 상대 골키퍼 펀칭에 막혔다.

순간 흘러나온 볼을 이승우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잡아 곧바로 슈팅을 했다. 그러나 또 한 번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절호의 골 기회를 날렸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11분 수비수 최재영(포항제철고)이 후방에서 길게 내준 패스를 김진야(대건고)가 최전방에서 잡아 쇄도했지만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위기도 있었다. 전반 19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브라질의 지오반니 나시멘투 시우바가 슈팅한 볼이 수비수 장재원(울산고)의 왼팔에 맞았다. 순간 브라질 선수들은 일제히 페널티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 전반 42분 중앙선 부근에서부터 이승우가 재빠르게 단독 드리블해 브라질 진영 페널티아크 부근까지 쇄도했지만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더욱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34분 마침내 한국의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브라질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쇄도한 김진야(대건고)가 내준 패스를 이상헌(현대고)이 받아 골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볼을 내줬다. 이때 쇄도하던 장재원이 볼을 잡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브라질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흥분한 브라질은 후반 39분 지오반니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한국은 10명으로 줄어든 브라질의 막판 공세를 잘 막아 1-0 승리를 지켰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을 딴 한국은 이날 1-1로 비긴 잉글랜드와 기니(이상 승점 1)를 따돌리고 B조 선두로 올라섰다. 한국은 오는 21일 기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렉시 톰프슨, LPGA 한국 대회서 우승

박성현, 1타 차 공동 2위 양희영, 9개홀 연속 버디

렉시 톰프슨(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톰프슨은 18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다. LPGA 투어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이다.

톰프슨은 2012년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이후 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LPGA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외국 선수가 됐다.


렉시 톰프슨이 18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9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장타자 박성현(22·넵스)은 공동 선두로 출발해 LPGA 투어 첫 우승을 노렸지만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위(14언더파 274타)에 올랐다. 쩡야니(대만)도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박성현과 함께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세계랭킹 2위 리디아 고(18)는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떨어져 고전하다 공동 4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2013년 이 대회 우승자 양희영(26·PNS)은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9개홀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코스 레코드인 10언더파 62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양희영의 9개홀 연속 버디는 1999년 베스 대니얼(미국)이 필립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세운 LPGA 투어 최다 연속 버디와 타이기록이다.

/장병호 기자

호날두, 팀 최다골 신기록 레알 마드리드서 324골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 최다골 신기록을 새로 썼다.

호날두는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정규리그 8라운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1골을 터뜨렸다. 팀은 3-0으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말뫼와의 경기에서 호날두는 개인 통산 500호골이자 기존 라울 곤살레스(뉴욕 코스모스)의 팀 최다득점인 323골과 타이를 이뤘다. 이날 골로 호날두는 팀 최다골 신기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호날두는 전반 27분 마르셀루의 선취골 이후 불과 3분 만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전방에서 강하게 중거리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한편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는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터뜨리며 팀의 5-2 대승을 이끌었다. /장병호 기자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정규리그 8라운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활약에도 패배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가 다름슈타트에 패배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은 후반 교체 출전해 활약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7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SGL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 분데스리가 9라운드 다름슈타트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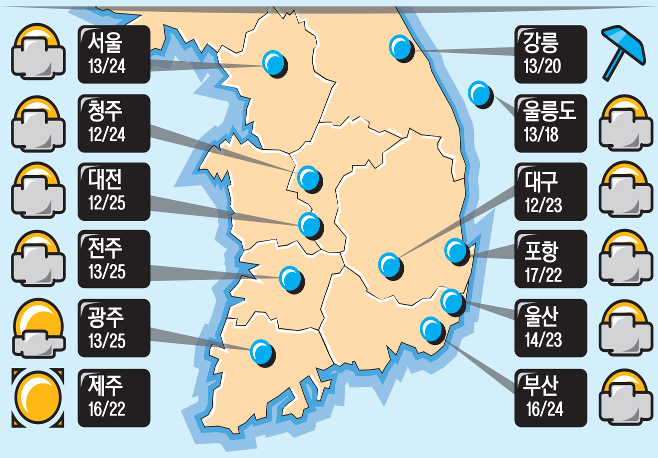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7분 자기 진영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내준 뒤 다름슈타트 산드로 바그너에 헤딩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전반 29분에는 반대편에서 크로스된 코너킥이 골대 앞에서 혼전을 벌이던 중 다름슈타트 페터 니마이어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추가골을 헌납했다. 구자철은 0-2로 뒤진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 힘을 보탰다. 그러나 만회골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지동원과 홍정호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림픽 대표팀 공격수 류승우가 결장한 레버쿠젠은 함부르크와 득점 없이 비겼다. 슈틸리케호 수비수 김진수가 속한 호펜하임은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2-4로 무릎을 꿇었다. 김진수는 교체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출전하지 못했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19 월 일출시각 06:43 일몰시각 17: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5		4			2	
	7	8			2	9	6	
			4			8		
	6		3	7	5		1	
		3			1			
	8	7	2			3	5	
	1			5		7	4	
					3		8	

		9	3		2		7	
				1			9	
		4			8	2	3	
1			4			8		3
			1	7	5			
2		5			3			1
	2	3	5			9		
	5			9				
	7		2		6	4		

스도쿠 정답

1	3	2	5	9	6	4	7	8
6	9	5	8	4	7	1	2	3
4	7	8	1	3	2	9	6	5
7	5	1	4	2	9	8	3	6
8	6	9	3	7	5	2	1	4
2	4	3	6	8	1	5	9	7
9	8	7	2	6	4	3	5	1
3	1	6	9	5	8	7	4	2
5	2	4	7	1	3	6	8	9

5	8	9	3	6	2	1	7	4
6	3	2	7	1	4	5	9	8
7	1	4	9	5	8	2	3	6
1	6	7	4	2	9	8	5	3
3	4	8	1	7	5	6	2	9
2	9	5	6	8	3	7	4	1
8	2	3	5	4	1	9	6	7
4	5	6	8	9	7	3	1	2
9	7	1	2	3	6	4	8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t looks good

A: Mr. Wang, here is my proposal.

B: Thanks for finishing this on time.

A: How does it look?

B: **It looks good.** It looks like you spent a lot of time on it.

A: Yes. Glad you like it.

B: It looks well-organized.
You nailed it!

좋아 보이네요

A: 왕 이사님, 여기 제 제안서입니다.

B: 제대에 끝내 줘서 고마워요.

A: 보시기에 어때요?

B: **좋아 보이네요.** 많은 시간을 들인 것처럼 보이는군요.

A: 네.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B: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요.
완벽해요!

문법Point

look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감각동사다. look은 보어로 형용사를 취한다. look like 뒤에는 명사나 명사절이 올 수 있다.

ex) You look sad. 슬퍼 보여요.
ex) You look like you're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엇인가 평가를 내리거나 '~해 보인다'라고 할 때 'It looks+형용사'를 사용한다. '~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려면 'It looks +명사/문장'을 사용한다.

Words

proposal 제안서 on time 정시에, 제때에
well-organized 잘 정리된

* You nailed it! : 완벽하게 했군요!
– 상대가 한 일을 칭찬해 주거나 잘했다고 인정해 줄 때 쓰는 표현. You did a good job!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의 취업이 고민입니다
건축 전공 살리거나 농업계통 진출이 길합니다

희망봉 남자 89년 7월 28일 양력 18시 40분경

Q 제가 하고 있는 노점상이 전철 출입구에 있어서 아침 마다 메트로 신문을 꼭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흥미 있게 읽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취업 문제를 상담 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대학교에 건축과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재수를 하고 군대를 다녀 오다보니 남보다 좀 늦습니다.

공무원 기술직 시험이나 또는 웬만한 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앞으로 장래나 자신의 진로에 맞아 무난한 인생살이를 하게 될까요? 앞으로 취업이 잘되어 결혼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진로를 정하고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마다의 생 연월일시에 따른 8글자인 사주팔자는 그 연월일시가 갖는 우주(星:별의 성운 '星雲')의 네 가지 기운과 지구의 네 가지 기운을 나타낸 것입니다. 천간(天干)인 지구에서 본 우주의 열 가지 기운(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이 있고 지구에서 본 땅은 열두 가지 기운(子,丑,寅,卯,辰,午,未,申,酉,戌,亥)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러한 우주의 열 가지 별 성(星)기운과 지구의 열두 가지 계절기운을 태어난 연월일시에 대입하고 보면 사주와 팔자가 되며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 운의 흐름과 직업을 가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드님은 '밭을 가는 소의 형상'으로 근면과 성실의 전형적인 유형이며 심지가 강직한 기운은 중년이후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만 고집이 있고 홀로 독행(獨行)하는 성질로 오히려 변화가 많습니다. 기토(己土)사주가 미월(未月)에 태어나 사방이 음기(陰氣)로 둘러싸여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면이 있으며 누구와도 친하려 들지를 않고 고지식하고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무른 특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정편관(正偏官:직업)이 운로에서 순조로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므로 남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대로와 전공을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배워온 전공으로 가든지 농업 계통으로 택하는 것이 길(吉)하고 무슨 일이건 한번 정해지면 올인 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9일 (음 9월 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60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72년생** 무난하게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84년생**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 **49년생**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61년생** 사람을 배반하지 마세요. **73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85년생**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4년생** 실패만 거듭될 뿐 득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86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세요.

토끼 **51년생**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63년생** 마음 편히 즐겁게 사세요. **75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87년생**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용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뱀 **5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5년생** 일마다 여의 하니 천금을 얻을것입니다. **77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89년생** 집안에 있는것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말 **5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66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90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양 **55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것입니다. **67년생** 귀인이 귀하를 도우러 오는 중입니다. **79년생** 독서를 즐기세요. **91년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사세요.

원숭이 **5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8년생** 현재의 막힌 상대를 한탄하지 마세요. **80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92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9년생** 살아왔던 인생을 되새겨보세요. **81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것입니다.

개 **58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70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8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돼지 **59년생** 거래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71년생** 저녁에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졸속 아닌가



송병형의 딴생각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한 뒤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미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데마고기'나 '프로파간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똑똑해질수록 좋은 법이다. 진영논리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국정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엉뚱하게 국정화 불똥이 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졸속 우려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다룬다. 애초 교과서 논란은 고등학교 한국사,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촉발됐다. 중학교 역사교과서까지 국정화가 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한국사가 들어간다는 것뿐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일부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맞춰 쓰려다보니 세계사까지 통째로 다시 쓰게 된 꼴이다. 혹자는 '세계사야 논쟁거리가 아니니 기존 내용대로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의 중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만 9종이다. 국정교과서 하나에 넣으려면 누군가 다시 써야 한다. 바뀌는 한국사 서술에 맞춰 관련 세계사 서술도 고쳐야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세계사를 쓸 사람이 마땅치 않다. 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한국사야 사학자들이 발을 빼더라도 정치학자, 경제학자, 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어찌어찌 쓸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사학계 전체의 좌경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사학자들을 대신할 집필자들이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공자들이 세계사까지 손댈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인도사, 서아시아사, 동남아시아사 등의 분야는 대부분 대학교수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를 통틀어 한두사람에 불과하다. 이들이 집필을 거부한다면 쓸 사람이 없다. 실제 유일한 인도사 교수는 집필 거부 의사를 주변에 알린 상태다. 가뜩이나 우리 세계사 교육은 유럽사나 중국사 등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학자들이 속된 말로 좀 팔리는 분야에만 몰린 결과다. 중국사와 서양사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한다면 학생들이 서양중심주의나 중화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가 미래 세대 대부분이 배울 마지막 세계사이기 십상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선택과목이고, 실용교육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이라고 다를 게 없다. 과연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검토했을 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서양과 중국만 알아도 되는 세계가 펼쳐진다면야 눈 딱 감고 넘어가겠지만 이미 지금의 세계는 인도나 브라질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자칫하면 미래 세대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지 모른다. 미래의 주역이 그런 상태라면 한국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박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말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들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정치부장

社說

북한은 이란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6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거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다시 진지하게 다루기로 한 셈이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국제외교 무대에서 소외된 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계속 벌여왔다. 때문에 국제사회, 심지어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중국조차 북한에 냉담해졌다. 한-미 정상의 이번 성명과 합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두 정상의 합의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도 담겨 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이럴 때 북한이 선택해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중동의 이란이 이미 보여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핵무기 개발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이란은 서방국과 의혹 종결을 위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의회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란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란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은 무턱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공허한 자존심이나 안보위협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첩경임을 북한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영화가 던지는 진짜 기자에 대한 질문들



기자 수첩

장 병 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영화는 현실의 거울이다.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에 비친 모습은 제각각 다르듯 영화가 담고 있는 현실 또한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어떤 거울이든 현실을 담는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을 반영한다. 영화를 통해 현실의 단면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로운 이유다.

최근 언론시사회로 먼저 접한 두 편의 영화는 예상치 못한 공통점이 있어 흥미로웠다. 바로 기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한국 언론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교롭게도 개봉일까지 같다. '특종: 량첸살인기'와 '돌연변이'다. 이들 영화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점하고 있는 위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두 편의 영화가 다루고 있는 기자는 정의롭고 사명감 넘치는 기자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다. '특종: 량첸살인기'가 그리는 방송국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된다.

거짓 제보에서 시작된 특종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자 모두가 환호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실제 기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광고주의 압력으로 기사를 빼려는 데스크의 모습도 실제 언론의 현실과는 다소 낯설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특종: 량첸살인기'가 그리는 방송국의 모습이 지금 언론사가 지닌 어두운 단면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돌연변이'에 등장하는 방송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파업으로 빈 취재기자의 자리를 회사는 수습기자로 채우려고 한다. 얼떨결에 방송국 수습기자가 된 주인공 상원(이천희)은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제약회사의 의학 실험으로 생선인간이 된 청년을 취재한다. 그러나 생선인간의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상원은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다. 영화 후반부, 진짜 기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고뇌하는 상원의 모습은 기자 입장에서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두 편의 영화가 언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 사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면 그때 진짜 기자가 된 것"이라는 '돌연변이'의 대사가 며칠째 마음속을 맴돌고 있는 이유다.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시급

소비자 119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관리가 매우 부실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6월 서울과 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 30세대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세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 중 22대(14.6%)가 정상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는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30세대 중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소방대책 미흡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동에 비치된 공용소화기 554대 중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표본조사를 통해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사

◇메트로신문사 △논설위원 부국장 차기태 △산업부장 윤휘종 △파이낸스&마켓부장 박승덕 △정경사회부 부장(부장대우) 김종훈 △라이프팀 팀장(부장대우) 염지은 △글로벌뉴스부 부장직대 겸 기획취재팀장(차장) 송병형 △파이낸스&마켓부 차장 김문호 △유통팀 차장 유현희 △산업부 차장대우 정은미 △광고마케팅국 AD기획부 부국장 김완일 ▷부국장 조경만 ▷부장 이원근 △경영지원실 실장(국장) 성준모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도시정책관 진현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성해 △국장급 전보 ▷국토정책관 윤성원 ▷수자원정책국장 김형렬

부고

▲ 김순금씨 별세, 정성기(MBN 산업부 기자)·성민(프로축구 경남FC 선수)씨 조모상, 차민아(MBN 경제부 기자)씨 시조모상=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층 특2호, 발인 18일 오전 7시(031-449-9000)

▲ 김장숙 씨 별세, 김원태(경기경찰2청 청문감사담당관)씨 부친상=18일 오전 3시 5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02-2072-2022)

▲ 한연자씨 별세, 김 혁(삼성전자 부장)씨 장모상=18일 오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발인 20일(062-951-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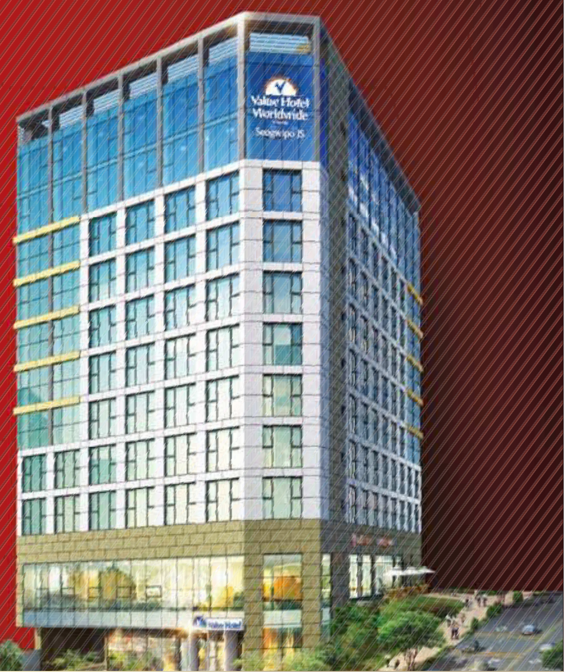
기사제보=02)721-9832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 ☑ 10년간 안전보장(공증)
- ☑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 ☑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 ☑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年10% 10년간 수익보장 | 年5% 10년간 이자지급 | 안전보장 공증 | 분양가 100% 환불 |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 2097-8888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74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77.30㎡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73.47%(법정 : 80%) ·연면적 : 11,565.86㎡ ·용적률 : 701.00%(법정 : 1,000%) ·주차장 면적 : 824.08㎡
·외부마감 : 제주석, 화강석, 복층유리 ·주차대수 : 72대 설치 / 장애인주차 3대 ·공개공지 : 89.46㎡ (법정 : 1,277.30x7% = 89.41㎡ 이상)
·조경면적 : 208.25㎡ (법정 : 1,277.30㎡x 15%=191.60㎡ 이상)
·상기 위치도, 조감도, 단지조감도, 이미지사진, 아이소,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